

부안 진서리 요지 5구역 발굴 조사 성과

삼국시대 측구식 탄요 · 유물퇴적구덩이 · 고려청자 생산 체계 밝힐 가마 · 청자 확인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전주대학교 박물관(총장 박진배)은 부안 진서리 요지 5구역(국가 지정문화재 사적) 발굴 조사에서 삼국시대 측구식 탄요, 고려청자가마 및 유물퇴적구덩이를 확인했다.

부안 진서리 요지는 일제강점기(1929년) 노모리켄(野守健)에 의해 발견된 후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1990년과 1993년 도로 개설 부지에 대한 일부 발굴 조사로 진서리 고려청자 가마터와 관련된 시설이 처음으로 확인된 바 있다.

부안군과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2022년 11월부터 진서리 요지 5구역에 대한 시굴 및 발굴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삼국시대 측구식 탄요 2기와 고려청자가마 1기, 폐기된 청자·벽체편·요도구 등이 묻힌 구덩이 등 고려청자 생산과 관련된 일련의 시설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측구식 탄요 2기는 전체적으로 연도부, 전면작업장, 접화부, 측구, 측면작업장 등이 일형 상태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측구식 탄요 중 가장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및 고고 지자기 연대 측정 결과 조성 및 운영시기는 6~7세기로 확인됐다.

또 고려청자가마는 19호 가마로 규모는 길이 720cm, 너비 148cm, 깊이 55cm 정도이며 가마 기둥기는 12°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

가마는 연도부, 소성실, 연소실, 아궁이, 불덕 등이 잔존해 있다.

가마의 동·서쪽으로 유물퇴적구가 확인됐으며



부안 진서리 요지 5구역 3지점 전경.

내부에서는 각종 요도구(갑발, 받침 등) 및 오벽체편, 각종 청자 등이 출토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12세기 중반에서 13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접, 접시, 잔 등의 일반 기종부터 장구, 주자 등의 특수한 기종까지 다양하게 출토됐으며 철화기법의 장구 등이 출토된 것이 주목된다.

박현수 전주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안 진서리 요지에서 삼국시대

측구식 탄요 및 고려청자가마 등이 확인돼 진서리 일대 생산체계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진서리 5구역 요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이 일대에 대한 발굴과 정비복원을 통해 고려청자 생산 체계를 지속적으로 밝혀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주덕유산리조트 썸머 페스티벌 개최

26일~8월 17일 통기타 · 어쿠스틱 · 미술 공연 등 다채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2024 무주덕유산리조트 썸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올해 진행될 썸머 페스티벌에서는 가족들부터 연인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통기타, 어쿠스틱, 미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는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2024 무주덕유산리조트 썸머 페스티벌' 행사는 지난해 11월 재개관한 호텔터를 노천카페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은 18시 30분부터 1시간마다 총 4번 진행되며 통기타 가수와 어쿠스틱 가수의 공연, 미술 공연으로 여름밤을 물들일 예정으로 시원하게 탁 트인 노천카페에서 자연 바람을 맞으며 온가족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더위를 잊을 수 있다.

주말 낮에는 설천봉 레스토랑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11시부터 1시간동안 통기타 가수와 어쿠스틱 가수의 공연으로 감미로운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매년 감동을 선사했던 썸머 페스티벌이 올해는 티오후엔 노천카페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해 준비했다"며 "연인부터 가족까지 함께 무주덕유산리조트에 찾아와 무더운 여름을 잊고 함께 공연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원한 바람과 계곡,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평균고도 해발 750m, 최고도 1,52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한여름에도 아침, 저녁에는 쌀쌀함이 느껴질 만큼 시원해 무더운 여름 피서지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명옥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초청 '전북지식살롱'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북 지식살롱(시즌2) 4회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일 재단에 따르면 '전통주를 활용한 로컬 관광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오는 31일 오후 5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강연을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관광 분야와 전통주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포스터 내 QR 코드

또는 신청 링크(hang.in.lrw)에서 할 수 있다. 지식살롱 네 번째 강연은 전통주를 활용한 맛과 멋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명옥 주류문화 칼럼니스트를 초청, 전통주를 활용한 전북자치도민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특별한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기획했다.

주요 내용은 △최고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해외 주류 관광산업, △유명인들이 참여하는 전통주 시장, △양조장, 와이너리가 로컬의 문화, 관광산업을 이끌 수 있는 이유, △새롭게 변화하는 전통주 비즈니스 모델 등이다.

특히 이번 강연은 인류와 역사를 잇는 술에 대한 재밌는 사색과 전통주를 활용한 국내외 관광 성공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한지로 만나는 명화' 성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지난 17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진행된 '한지로 만나는 명화'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전통한지를 알리기 위해 전주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명화를 감상하고 한지와 식재료를 이용해 표현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교육에 참여한 아이와 부모는 모네의 '수련' 작품을 한지와 식재료를 이용해 표현하고, 완성한 작품을 언어로 직접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통한지를 찢어보고 붙이는 촉각 활동을 통해 한지 특유의 질감과 형태를 알아봤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장은성 기자

문화재돌봄센터, 국가유산 긴급 보수

익산 함열향교 등 문화재 피해 확인... 긴급 보수로 추가 훼손 방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전북서부문화재돌봄센터(센터장 남해경)가 전북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에 대한 긴급 보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센터에 따르면 전북 서부권 6개 시·군의 국가유산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익산 함라마을 옛 담장 및 익산 함열향교 등 익산 지역의 집중적 피해를 발견했다.

이 중 익산 함열향교는 난산재 좌측 담장이 무너지고, 대성전 배면 외부 담장 벽체 일부가 손상됐으며, 충효관 주변 배수로는 우수로 인한 토사가 유입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센터는 22일 돌봄 종사자들을 투입해 긴급 보수를 진행했다.

남해경 센터장은 "앞으로도 집중호우 및 태



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이에 맞는 자연열을 구축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즉각적인 대응책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자연 속 예술문화 여행 펼쳐진다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7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덕유산 탐방안내소에서 자연과 어울린 다채로운 테마별 예술 릴레이 전시와 라이브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전북문화재단과 무주생활문화동호회네트워크(생문동)와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덕유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쉽고 영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7월 29일부터 캘리그래피와 생활가구DIY 전시를 시작으로 1주일 마다 특색있는 릴레이 테마 전시를 만날 수 있으며, 통기타와 플루트, 색소폰 등 악기 공연과 '언박싱' 국악 공연 등은 7월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자연에서 감동이 두 배가 되는 다채로운 라이브 공연을 운영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